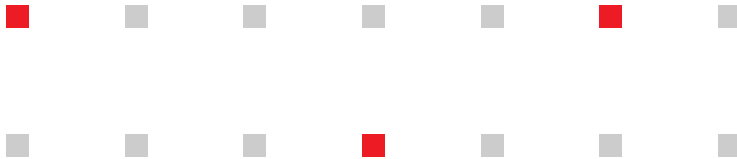


100세 시대 도래, 노인 삶의 질 준비 필요하다

노년기의 여가문화 조성,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1. 한국사회, 2020 년이면 100세 시대 도달
2. 전라북도 노인여가 무엇이 문제인가?
3. 활기차고 준비된 장수사회를 위한과제 : 여가문화조성으로 대응하자

연구진 조 경 욱 연구위원 wook7231@jthink.kr
이 동 기 연구위원 base@jthink.kr
이 중 섭 연구위원 welfare73@jthink.kr



이슈브리핑 Issue Briefing

전북발전연구원 이슈브리핑 2011년 10월 4일 vol.58
발행처 : 전북발전연구원 | 발행인 : 원도연
주소 : 전북 전주시 완산구 전라감영로 57(중앙동 4가 1) TEL : 063)280-7100 FAX : 063)286-9206

※이슈브리핑에 수록된 내용은 연구진의 견해로서 전라북도의 정책과는 다를 수도 있습니다.
※지난 호 이슈브리핑을 홈페이지 (www.jthink.kr)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C O N T E N T S

100세 시대 도래, 노인 삶의 질 준비 필요하다 노년기의 여가문화 조성,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 1. 한국사회, 2020년이면 100세 시대 도달
 - 1) 한국의 평균 기대수명 및 노인인구 전망 4
 - 2) 80세 시대와 100세 시대, 무엇이 어떻게 달라지나? 5
 - 3) 길어진 노년기, 여가생활 패러다임 변화로 준비해야 6
- 2. 전라북도 노인여가 무엇이 문제인가?
 - 1) 여가인식과 여가시간의 비효율성 7
 - 2) 여가의 수급불균형과 '노인맞춤형' 프로그램 부족 8
 - 3) 경제적 빈곤 등, 개인의 여가활동 격차 10
- 3. 활기차고 준비된 장수사회를 위한과제 : 여가문화조성으로 대응하자
 - 1) 100세 시대를 대비한 중·고령자의 여가정책 모델구축 11
 - 2) 노인의 경제적부담 줄이기 위한 돈 덜 드는 여가문화 활성화 12
 - 3) 실버전용 극장, 여가와 일자리 연계할 수 있다 15

●●● 요약

1. 2020년에 100세 시대 도달, 길어진 노년기로 여가생활 중요성 부각

- 한국인의 최빈사망연령 90대를 넘어 2020년에 100세 시대 진입
 - 100세 이상 고령자 인구는 2005년 961명에서 2011년 1,863명으로 91.1% 증가하는 등 한국의 고령인구 증가속도 세계 최고수준 임
 - 시·군·구별 인구 10만명당 100세 이상 인구는 전북 장수군이 36.0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으며, 임실(29.6명) 전남 곡성(29.3명) 전남 강진(26.3명) 등으로 전북지역 고령노인 증가에 따른 정책대응 필요
- 100세 시대 노인여가패러다임은 순환형과 돈 덜드는 여가로 전환
 - 80세 시대 여가패러다임은 교육, 경제활동, 여가가 직선형 패턴이었지만 100세 시대에는 교육, 경제활동, 여가가 반복되는 순환형으로 전환
 - 은퇴 이후 소득감소 및 연금부족, 채무부담 가중 등으로 여가비용 지출을 꺼려하는 노인의 생애주기 특성을 고려하여 “돈 덜 드는 여가생활”을 통한 노인의 삶의 질 지원

2. 전라북도 노인여가시설 수급불균형 및 프로그램 다양성 부족

- 노인인구 천명당 노인복지여가시설은 전북은 16.57개소로 전남 다음으로 가장 많지만 전북 14개 시·군별로 편차가 큼 (전주 6.32개소, 진안 34.02개소)
- 경로당 이용율은 60.7%로 높지만 노인복지관, 노인교실 이용율은 10~13%수준으로 낮아 시설에 대한 접근성부족 및 노인육구를 반영하는 프로그램 미흡 등의 문제
- 전북 노인세대의 여행관광은 연평균(1.12회)에 불과하고 공연관람은 전무한 것으로 나타남. 취미오락 시간은 0.92시간, 능력개발은 0.26시간으로 전국평균보다 높지만 봉사활동은 0.17시간으로 전국평균보다 낮음
- 노인가구의 총소득도 연평균 1,194.46만원으로 전국평균 1,772.11만원 보다 약 380만원 적어 여가에 대한 투자도 위축될 가능성 높음

3. 실버전용 극장, 어르신 전북관광 투어 등으로 돈 덜드는 여가문화 조성

- 100세 청춘 문화예술교육활동 지원
 - 노인들의 문화예술창작활동 지원, 교육 후 자원봉사활동으로 연계
 - 사회적기업 위탁 운영하여 일자리창출 도모
- 100세 콘서트 문화예술향유 프로그램
 - 각종 콘서트 최중리허설 전 ‘드레스타임’을 이용한 노인무료 공연 관람 추진
- 어르신 전북 관광투어
 - 전북지역 관광명소 순환관광 및 노인들 도내 고향방문 추진
- 실버전용 극장
 - 노인들의 문화예술 향유와 체험, 참여를 지원하는 실버전용 극장
 - 폐관 극장 재활용, 문화예술 관련 사회적 기업 운영으로 일자리 창출과 노인들의 문화육구 충족

1. 한국사회, 2020년이면 100세 시대 도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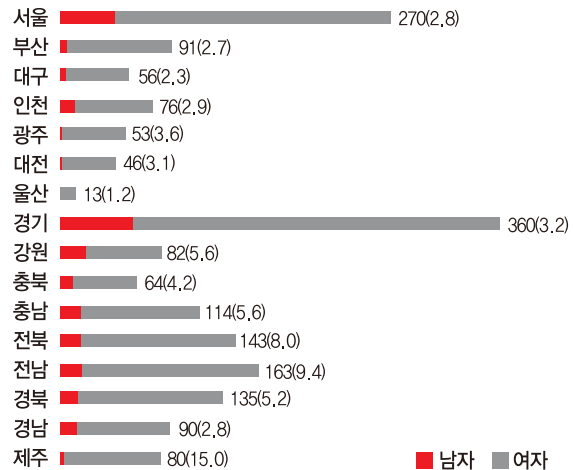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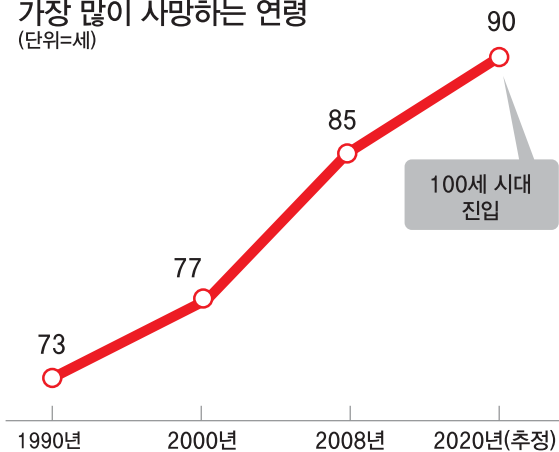
1) 한국의 평균기대 수명 및 노인인구 전망

- 한국인의 최빈사망연령 90대를 넘어 100세 시대¹⁾ 진입 전망
 - 의료기술 발전과 생활환경 개선으로 평균수명이 연장, 최빈사망연령이 상승하여 100세까지 생존할 수 있는 시대가 다가오고 있음
 - 지난해(2010년) 우리나라 100세 이상 인구는 9,770명으로, 2005년 961명에서 5년 만에 10배 이상 증가하여, 대표적인 장수국가인 일본의 100세 이상 인구(2009년)4만여 명에 미치지 못하는 못하지만 증가속도는 세계 최고수준 임
- 2011년 현재 국내 100세 이상 고령자 인구는 1,836명,

전북은 143명

- 100세 이상 고령자 인구는 2005년 961명에서 2011년 1,863명으로 91.1% 증가하였으며 인구 10만 명당 100세 이상 인구는 2005년 2.0명에서 3.8명으로 증가
- 시·도별 고령자는 경기도가 360명(19.6%)으로 가장 많으며, 서울(270명), 전남(163명)순 임. 인구 10만 명당 100세 이상 인구는 제주가 15.0명으로 가장 많으며 전남(9.4명), 전북(8.0명) 순임
- 시·군·구별 고령자 규모를 보면 인구 10만 명당 100세 이상 인구는 전북 장수군이 36.0명으로 가장 많으며, 전북 임실군이 29.6명임. 그 다음은 전남 곡성(29.3명), 전남 강진(26.3명), 전남 함평군(25.8명) 순으로 이들 지역의 노인인구 밀도가 높음을 알 수 있음

가장 많이 사망하는 연령 (단위=세)



주: ()안은 10만명 당 100세 인구 비율을 의미 /자료: 통계청(2011), 100세이상 고령자조사 결과

<그림1> 100세 인구현황 및 10만명 당 100세 인구 비율

- 100세 시대 도래에 대한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신속한 대응 필요
 - 100세 시대의 도래는 사회 및 경제, 문화, 여가 등 많은 부문에서 변화를 야기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으며, 이는 노년기 연장에 따른 정책 패러다임 변화를 요구

※ 정부는 2011년 대통령 신년연설을 통해 국가정책의 틀을 100세 시대에 맞추어 바꾸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한국개발연구원과 경제사회인문연구회 주관으로 6개월 동안 연구를 통해 “100세 시대 어떻게 행복하게 살 것 인가?”에 대한 기획시리즈

1) 100세 시대: 가장 많은 사람이 사망하는 연령대(최빈사망연령)가 90세가 되면 100세 이상 생존자가 크게 늘어나는 만큼 장수사회의 상징으로 붙여진 이름임. 1980년대 들어 최빈사망연령이 70세가 되자 '80세 시대'로 불린 것과 마찬가지로 임

를 발표함

- 100세 시대의 도래에 대한 준비는 무엇보다도 정책 패턴을 삶의 질 중심으로 재편 할 것과, 동시에 개개인의 노후 재설계에 대한 정책마련이 우선 시 되고 있음
- ※ 보건복지부는 65세인구 노인인구 비율이 2030년에 24.3%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 노후 삶의 질 향상 및 관리를 위해 2011년부터 전국에 “노후설계센터”를 설치하여 일자리, 건강, 여가, 봉사활동 등을 중심으로 생활설계를 제공하고 있음

2) 80세 시대와 100세 시대, 무엇이 어떻게 달라지나?

- 준비 없는 100세, 여전히 시스템은 80세
 - 현재 100세 진입 가능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제도와 정책시스템은 여전히 80세에 머물러 있음
 - 연금, 복지, 보건, 재정, 교육, 취업, 정년제도 등의 모든 시스템들이 라이프 사이클을 60세에 은퇴해서 80세까지 사는 것을 전제로 계획, 추진되고 있음
 - 우리나라 근로자들의 평균 정년퇴직 연령은 57세(한국노동연구원, 2008년)로, 퇴직 후 100세까지 43년 동안의 준비가 되어있지 않아 급격한 사회적 불균형을 야기할 우려가 있음

〈표-2〉 80세 시대와 100세 시대의 차이

구분	80세 시대	100세 시대
주요목표대상	취약노인, 베이비 붐 세대	전 국민, 특히 장년 중심
정책영역	취약 노인의 건강, 주거, 소득 영역으로 확대	정부 주도형을 넘어선 사회적 협약
인식	사회적 부담, 대체의 대상, 보편적 시혜적 복지, 국가책임 강조	사회자원, 재출발 부양부담을 국가, 개인, 사회가 공동 나눔
정책대응방식	방어적 소극적 대응, 혜택 축소를 통한 복지 공급 조절	적극적대응, 교육, 근로등 고령자참여를 통한 복지수요 조절

자료: 경제사회인문연구원(2011). 100세 시대 어떻게 행복하게 살 것인가?

- 80세 이후 소득감소에 직면, 100세 노후대책에 대한 우려 확대
 - 은퇴 이후 대부분 노후 준비가 80세로 되어 있어, 80세 이후 소득감소, 연금부족 및 건강악화, 생활비 가중, 간병비 증가 등에 따른 자산건전성 악화 예상됨. 약 20년 동안 공백 기간이 존재함에 따라 80세 이후 노후대책에 대한 우려확대
 - 은퇴 세대의 노후 대비 생활수단은 국민연금(38.5%), 예금·적금(24.3%), 사적연금(19.5%)을 이용하고 있음. 그러나 국민연금은 고령화 및 재정구

- 조 취약성으로 인해 2044년 이후 적자발생이 예상 (보건복지부, 2008, 국민연금 재정계산 결과)
- 은퇴빈곤층은 101만 5,000가구로 전체 은퇴가구 264만 3,000가구 중 38.4% 차지
 - 은퇴빈곤층이란 은퇴 후 소득이 법정 최저생계비 (4인 가구 기준 2010년 136만원)보다 적은 고령가구임. 은퇴 빈곤층은 '10년에 101.5만 가구로 추정
 - 특히 전체 독거노인(102만 4000가구) 중 절반을 넘는 58만 가구(56.6%)가 은퇴빈곤층으로 조사됨 (현대경제연구원, 2011)

〈표-3〉 은퇴세대의 노후대책 조사

노후대책수단	전체	은퇴세대
국민연금	37.0%	38.5%
예금·적금	25.6%	24.3%
사적연금	20.1%	19.5%
기타공적연금	7.1%	7.1%
부동산운용	5.7%	6.0%
퇴직금	3.4%	3.8%
기타(주식, 채권 등)	1.1%	0.8%

자료: 통계청(2010). 사회조사를 통해본 베이비붐 세대 특징.

〈표-4〉 은퇴빈곤층과 은퇴부유층 추계

만60세 이상 은퇴가구	264.3만 가구(100.0%)
은퇴 빈곤층	101.5만 가구(38.4%)
은퇴 부유층	8.4만 가구(3.2%)
은퇴 중간층	154.4만 가구(58.4%)

자료: 현대경제연구원(2011). 은퇴빈곤층의 추정과 특성

3) 길어진 노년기, 여가생활에 대한 패러다임 변화로 준비해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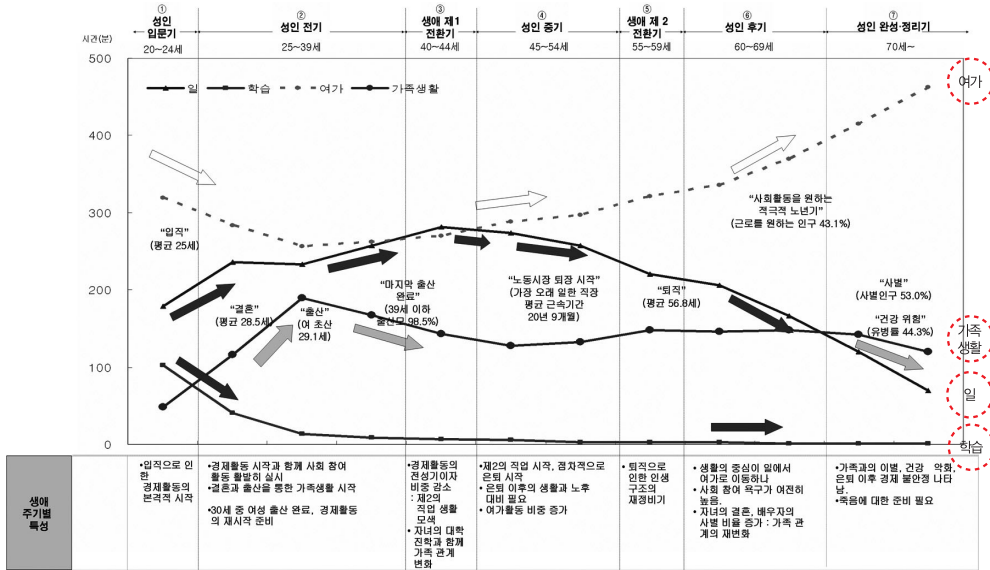
○ 100세 시대의 노인여가 패러다임은 직선형에서 순환형으로 바뀌어야

- 생애주기별 생애사적 사건을 보면 60세 이후부터 학습에 대한 관심보다는 여가에 대한 관심이 확대하여 투입시간이 증가함에 따라 여가 교육 및 프로그램 개발이 중요해짐

- 특히, 여가 교육 및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한 이유는 고령자들은 여가에 대한 경험과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아 여가를 즐길 수 있는 분위기 형성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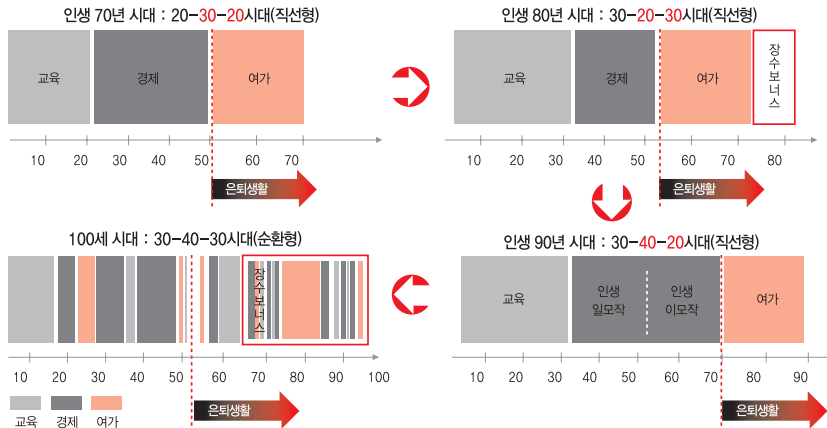
- 여가의 패러다임이 80세의 경우 교육과 경제활동, 여가를 직선형 패턴으로 인식하였다면 100세 시대로 갈수록 교육과 경제활동, 여가가 반복되는 순환형으로 변화되고 있음

〈그림-2〉 생애사적 관심 변화 패턴



자료: 교과부(2008), 평생교육진흥 기본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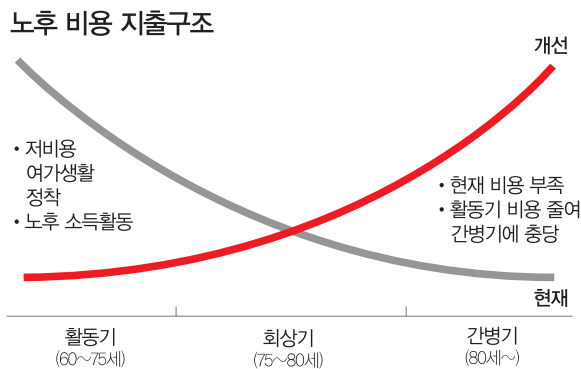
〈그림-3〉 100세 시대의 생활 패턴



자료: 경제사회인문연구회(2011), 100세 시대 어떻게 행복하게 살 것인가?

- 노후비용 지출구조는 여가와 간병을 고려한 단계별 설계 필요
 - 노년기는 최장 40년으로 노년기 자체가 활동기, 회상기, 간병기로 분화되고 있음. 은퇴초기에 여가활동에 집중하고 간병기에 필요한 자금을 활용해야 함
 - 노년기 중 활동기(60~75세)는 은퇴 후 활발한 활동이 이루어지는 시기로 노후 소득 활동, 저비용 여가생활 정착을 이루어야 하는 시기임. 그리고 회상기(75세~80세)를 지나서 간병기(80세~100세)는 생활비용이 부족한 시기로 활동기 비용을 줄여 간병 자금이 충당해야 할 시기임

〈그림-4〉 100세 단계별 노후비용지출구조



자료 : 매일경제(2011.9.1) 대한민국 은퇴보고서 "Happy 100 호모헌드레드" 시리즈 6편 '저렴한 비용으로 즐기는 100세'

- 경제적인 부담이 없는 돈 털 드는 여가 생활 찾기
 - 노년기의 여가생활도 100세를 대비해서 돈 털 드는 프로그램을 선택해야 함. 은퇴 초기에 과도한 비용을 지출할 경우 간병기에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돈이 털 드는 여가활동으로 합리적인 지출과 생활패턴 필요
 - 전국노인생활 실태조사(2008년)에 의하면 전라북도 노인들은 가장 중요한 노후생활 준비로 '건강한 신체'가 55.3%로 가장 높은 응답을 보이고 있어 건강 증진을 위한 여가활동과 프로그램, 정책적 지원 등이 뒷받침되어야 함
 - 한편, 노인들의 월평균 개인소득은 20만원 미만이 31.9%, 20~40만원 미만이 17.8%나 되고 있어 기본적인 생활유지 이외에 돈이 들어가는 여가생활에 대한 투자는 전혀 고려할 수 없는 실정임
 - 따라서 100세 시대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건강관리를 위한 여가활동 지원과 더불어 돈이 털 드는 여가 프로그램을 노인들에게 제공해야 함

〈표-5〉 전북지역 노인생활실태조사 주요 결과

구분	내용
월평균 개인 소득	20만미만 31.9% > 20~40만원미만 17.8%
노후생활 준비	건강한 신체 55.3% > 경제적 준비 34.6%

자료 : 보건복지부(2008). 노인생활실태조사 결과 재정리

2. 전라북도 노인여가 무엇이 문제인가?

1) 여가인식과 여가시간의 비효율성

- 여가활동의 다양성이 부족하고, TV와 휴식 등 소극적인 활동중심
 - 노년기에는 여가시간이 청·장년기와 비교하여 확연하게 증가함에 따라 자기개발 활동뿐만 아니라 보

다 다양한 활동을 추구하게 됨. 그러나 실제 절대 여가시간이 늘어났음에도 대부분의 노인은 여가활동을 제대로 즐기고 있지 못하고 있으며, 대부분 여가시간은 미디어를 시청²⁾하거나 휴식, 친구와 시간을 보내는 비생산적인 활동이 주를 이룸

2) 60대 이상의 연령별 행위자 평균시간(통계청, 2009)에 따르면 60세 이상 고령자의 경우 1일 24시간 중 여가시간(학습, 봉사 및 참여, 교제 및 기타여가활동)이 11시간 41분으로 1일 24시간 중 약 49%를 차지하고 있음. 여가시간 중 TV 및 신문, 인터넷 등의 미디어 이용이 3시간 35분으로 약 1/4정도 임

〈표-6〉 주말이나 휴일의 주된 여가활동방법

	TV시청	여행	문화예술 관람	스포츠 관람	컴퓨터게임, 인터넷검색등	창작적 취미	자기개발	봉사활동	종교활동	가사일	휴식	사교관련 일	기타
계	30.1	5.3	2.5	0.9	5.4	5.9	1.0	3.1	0.4	9.6	14.1	12.9	8.3
15~19세	26.5	1.2	3.4	0.7	3.7	25.2	1.4	14.2	0.3	4.1	0.7	7.4	10.7
20~29세	23.2	4.9	7.8	1.5	4.8	12.5	1.1	5.8	0.3	4.7	5.4	10.6	17.1
30~39세	27.9	8.2	2.6	1.1	4.7	5.3	0.9	2.4	0.1	8.5	17.6	12.5	7.7
40~49세	28.3	6.2	1.5	0.8	8.2	2.1	1.1	1.2	0.5	11.9	18.4	14.7	4.6
50~59세	31.0	6.2	0.6	0.8	6.6	1.2	1.0	0.9	0.7	11.8	17.2	15.5	5.8
60~64세	41.5	2.4	0.2	0.2	3.0	0.6	0.7	0.4	0.3	13.2	16.4	13.4	6.5
65세이상	43.7	1.7	0.2	0.1	2.3	0.4	0.6	0.3	0.3	13.4	15.8	13.2	6.8

자료 : 통계청, 2009 사회조사

- 현재의 노년층 남성=일, 여성=자녀양육으로 여가의 경험과 교육이 부재
 - 여가시간의 비효율적 사용의 원인은 일 외의 여가시간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개인적으로 생각할 시간이 없었다는 것과, 여가활용에 대한 정보, 교육 및 경험의 부족을 들 수 있음

- 또한 고령 남성의 경우, 은퇴 전에는 가족 중심이 아닌 일 중심의 활동을 해왔기 때문에 은퇴 후 가정에 머무르면서 어떻게 노후를 보내야 할지 모르는 경우가 많으며, 고령여성의 경우 자녀양육 중심으로 생활해왔기 때문에 자녀의 독립이나 출가 후 여가생활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음

〈표-7〉 시기별 참여 여가 경력사항(청·장·노년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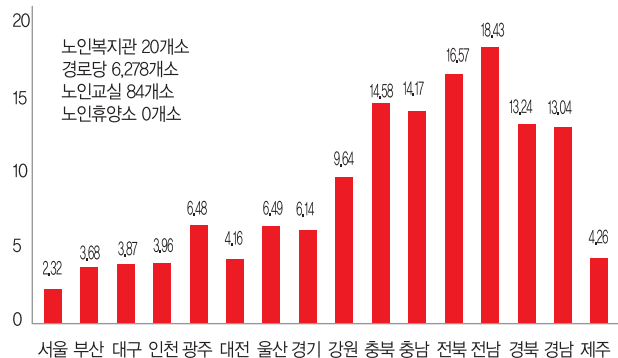
여가활동 항목	청년기(20~30대)	장년기(40~50대)	노년기(60대 이상)
없다	88.2	76.0	0
운동/건강관리프로그램	7.3	18.3	61.6
지식/교양프로그램	3.9	5.5	45.9
노래/오락프로그램	2.4	5.3	30.9
기타	여행, 관광, 낚시프로그램 등(1.4)	사회봉사활동(1.8)	사회봉사활동(7.3)

자료 : 한국문화관광연구원(2008), 노인여가문화 활성화 방안을 위한 실태조사

2) 여가의 수급불균형과 ‘노인맞춤형’ 프로그램 부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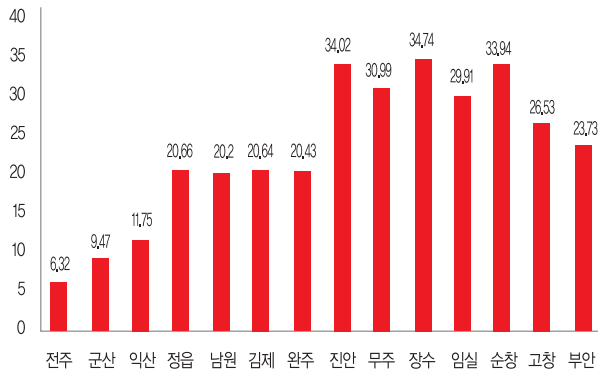
- 노인여가시설 인프라의 불균형 심각
 - 전라북도의 노인복지시설 인프라를 보면, 노인복지관 20개소, 경로당 6,278개소, 노인교실 84개소 등 총 6,382개소임.
 - 노인복지여가시설의 규모를 노인인구 천명기준으로 보면, 전북은 16.57개소로 전남 다음으로 가장 많지만, 14개 시·군별로 편차가 매우 심한 것으로 나타남.

〈그림-5〉 노인 천명 당 노인여가복지시설 수



- 노인 천명 당 노인여가시설 수는 진안군이 노인천명 당 34.02개소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장수와 순창이 각각 34.74개소와 33.94개소 등으로 군부의 노인여가시설이 시부보다는 높게 나타나 군부와 시부의 여가시설 인프라의 불균형이 큰 것으로 나타남.
- 특히, 노인여가시설 수가 가장 적은 전주에 비해서 진안군은 무려 6배 이상 많은 여가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남. 2011년 현재 전주시의 노인인구는 61,560명으로 전북 전체 노인인구의 21.6%를 차지하고 있지만 노인 천명 당 6.32개소로 상대적으로 노인여가 시설이 매우 부족한 실정임

〈그림-6〉 지역별 노인여가시설 수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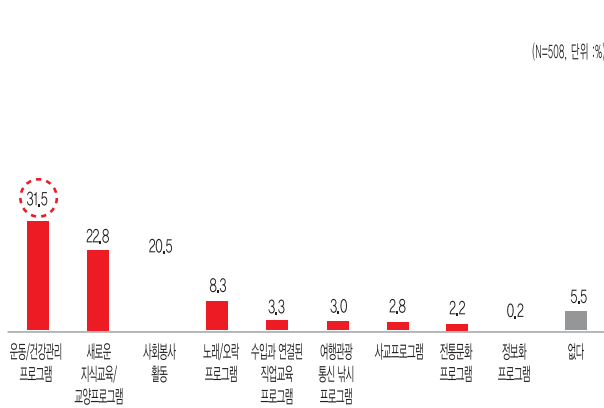


〈표-7〉 시기별 참여 여가 경력사항(청·장·노년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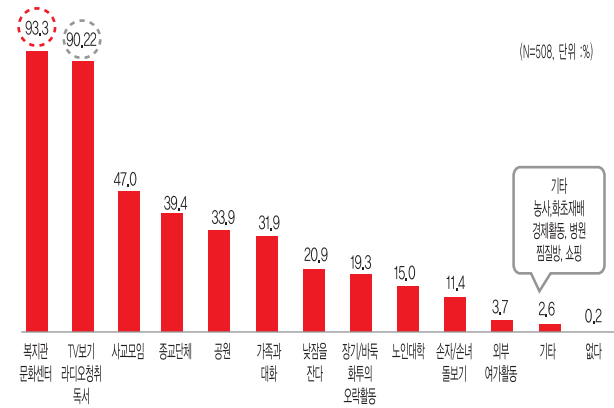
노인여가시설	인지율		현재 이용율		이용희망율	
	전국	전북	전국	전북	전국	전북
경로당	98.1	97.0	46.9	60.7	57.9	73.5
노인교실	80.8	88.0	13.8	10.8	30.5	31.1
노인복지관	81.2	88.4	17.5	13.6	35.9	39.4
노인휴양소	31.7	39.7	1.3	1.8	28.5	35.2

자료: 2008년도 전국 노인생활실태 및 복지욕구 조사

- 노인들의 눈높이에 맞는 여가프로그램의 절대부족
 -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의 조사결과(2008)에 의하면 '노인이 향후 참여하고 싶은 여가활동'에 대해서는 '운동/건강관리프로그램' (31.5%)의 요구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는 '새로운 지식교육/교양프로그램(22.8%)', '사회봉사활동(20.5%)' 등의 순서로 조사됨
- 반면, 현재 노인들의 주된 여가활동으로는 '복지관 및 문화센터(93.3%)에서 주로 시간을 보내고, 다음으로는 'TV보기, 라디오청취, 독서(90.0%)' 등의 집안 내에서의 여가활동이 주된 내용으로 응답하고 있어 노인들의 여가욕구와 눈높이에 맞는 프로그램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것으로 나타남



〈그림-7〉 참여하고 싶은 여가활동(복수응답)



〈그림-8〉 평소 하루 여가활동

3) 경제적 빈곤 등 개인의 여가활동 격차

- 전라북도 노인세대 여행관광 연 1.12회, 연평균 여행관광비용은 22.06만원 불과
 - 전북 노인의 여가문화 활동을 보면, 여행관광이 연 평균

1.12회에 불과하고 공연관람은 전무한 것으로 나타남.

- 취미오락시간은 0.92시간, 능력개발교육은 0.26시간, 봉사활동참여는 0.17시간 정도로 취미오락과 능력개발교육은 전국평균보다 높지만 봉사활동 참여는 낮게 나타남.

〈표-9〉 노인의 여가문화 활동 정도와 투자

	여행관광	공연관람	취미 오락 (시간)	능력개발 교육 (시간)	봉사활동 참여 (시간)	여행관광 비용 (만원)	공연관람 비용 (만원)	취미오락 비용 (만원)
서울	0.49회	0.04회	0.40	0.11	1.67	46.08	9.71	1.57
부산	0.31회	0.11회	0.45	0.24	0.28	44.02	2.20	2.00
대구	1.32회	0.08회	0.70	0.10	0.31	30.38	7.33	1.58
인천	0.80회	0.04회	0.89	0.35	1.07	21.10	2.20	5.88
광주	1.14회	0.19회	0.47	0.09	0.31	19.65	0.55	3.10
대전	0.79회	0.16회	0.08	0.02	0.02	114.31	0.50	3.75
울산	0.55회	0.00회	1.00	0.10	0.10	9.44	0.00	2.60
경기	0.54회	0.15회	0.40	0.31	0.60	47.23	5.90	2.15
강원	0.73회	0.07회	0.37	0.00	0.16	50.78	60.00	8.67
충북	0.68회	0.02회	0.00	0.00	0.00	66.49	6.67	.00
충남	0.71회	0.05회	0.09	0.00	0.04	76.21	15.50	2.00
전북	1.12회	0.00회	0.92	0.26	0.17	22.06	.00	1.43
전남	0.84회	0.03회	0.06	0.00	0.00	8.74	1.33	.00
경북	0.66회	0.00회	0.21	0.10	0.00	31.42	.00	16.00
경남	0.63회	0.13회	1.08	0.12	0.34	22.21	27.83	2.64
평균	0.70회	0.08회	0.45	0.15	0.52	40.92	7.55	2.55

자료 : 한국고령자패널 3차 원자료 분석.

- 일하고 있는 노인 10명 중 3명, 대부분 저임금 일자리에 종사
 - 전라북도의 65세 이상 노인 중 일을 하고 있는 노인은 27.2% 정도로 전국평균에 비해 높지만 근로소득

은 월평균 58.86만원 밖에 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 일하고 있는 노인의 근로소득이 가장 높은 지역은 충남으로 전북보다도 약 세배 많은 170.83만원임.
- 노인가구의 총소득도 연평균 1,194.46만원으로 전국평균

인 1,572.11만원 보다 약 380만원이 적은 것으로 나타남.
 • 노인들의 여가에 대한 욕구는 높지만 경제적 부담으로 인하여 여가활동이 위축될 수 밖에 없는 현실을

고려할 때, 전라북도 노인여가활동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돈 덜 드는 여가활동 프로그램의 개발과 제도적 지원이 필요 함

〈표-10〉 노인세대의 소득과 소비

	근로여부 (%)	근로소득 (만원)	사업소득 (만원)	가구총소득 (만원)	생활비 (만원)	식비 (만원)	외식비 (만원)	주거비 (만원)	의료비 (만원)	피복비 (만원)
서울	13.5	106.83	155.71	1914.02	110.64	35.53	3.67	16.15	8.94	4.24
부산	12.6	77.91	166.00	1214.96	75.74	29.54	2.92	11.25	6.48	2.92
대구	14.3	73.065	104.13	1603.78	97.57	38.29	4.02	15.11	7.62	3.63
인천	13.5	81.95	75.83	1211.93	85.52	24.05	2.75	15.15	6.57	2.67
광주	15.0	88.53	47.10	1660.35	90.41	24.13	3.75	16.15	6.91	5.20
대전	13.0	168.57	201.25	1936.04	89.11	28.64	6.70	12.20	8.95	7.74
울산	14.3	108.75	103.33	1730.02	105.64	32.95	2.75	13.07	5.43	3.20
경기	17.4	91.55	145.44	1792.56	107.86	32.18	4.47	15.19	10.74	4.30
강원	42.4	73.86	74.81	1566.92	98.42	22.61	4.65	21.94	11.42	2.18
충북	17.4	94.28	160.00	1498.47	60.12	17.33	2.89	8.39	6.88	3.25
충남	38.1	170.83	231.66	1717.21	73.27	22.37	4.22	10.98	8.10	5.67
전북	27.2	58.86	212.57	1194.53	67.26	17.98	2.74	12.94	7.29	3.22
전남	48.1	69.53	54.75	1103.46	55.65	14.20	1.42	9.50	6.21	2.55
경북	37.4	77.42	64.44	1308.37	70.20	23.05	2.63	10.72	5.29	1.86
경남	24.6	68.33	67.77	1327.80	77.20	24.04	2.61	10.87	7.86	3.09
평균	22.2	90.18	125.27	1572.11	88.67	27.38	3.53	13.64	8.15	3.75

자료 : 한국고령자패널(2008) 3차 원자료 분석.

3. 활기차고 준비된 장수사회를 위한 과제 : 여가문화 조성으로 대응하자

1) 100세 시대를 대비한 중·고령자의 여가정책모델 구축

- 높은 여가수요에 대응한 여가인프라 구축을 위한 정책 마련 필요
 - 100세 시대의 도래와 길어진 노년기 등으로 고령자들의 여가에 대한 관심과 욕구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고령자들의 수요 및 특성 등을 고려한 여가정책 대응이 필요함

- 노인들의 교육 참여희망 내용을 살펴보면, 건강관리가 51.4%로 가장 높고, 그 다음 여가 및 취미활동이 26.6%로 건강 및 여가 등에 대한 관심이 높음
- 또한, 전북 노인들의 노후 희망활동으로 여가 및 취미활동에 대해 35.6%가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이는 노년기에는 삶의 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질 좋은 여가활동의 중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고 여가를 통해 사회적으로 관여하기를 기대하고 있기 때문임

〈표-11〉 전북 지역 노인들의 교육 참여희망 내용(n=739)

희망교육내용	건강관리	여가취미	일반교양	정보교육	사회참여	대인관계	취업	노후경제	기타
비율(%)	51.4	26.6	8.9	5.8	3.8	1.5	0.9	0.4	0.6

자료 : 보건복지부, 2008년도 노인생활실태조사

〈표-12〉 전북 지역 노인들의 여가 및 취미 희망 활동(n=739)

구분	전혀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저그렇다	그런편이다	매우그렇다
비율(%)	11.4	26.1	26.9	33.4	2.2

자료: 보건복지부, 2008년도 노인생활실태조사

- 건강, 여행, 사회참여와 자원봉사, 교육이 연계된 여가 모델 필요
 - 노년기 여가에 대한 욕구는 건강과 관련 된 활동에 관심이 높은 반면, 자원봉사에 대한 경험은 낮은 것으로 나타나 전북노인을 포함한 향후 노인의 여가활동은 건강과 교육,

- 자원봉사가 연계되는 프로그램 중심으로 지원
 - 건강과 여행 등에 대한 여가문화에서 자원봉사 활동 및 일, 여가를 동시에 경험할 수 있는 사회적 기업 및 NPO 활동 등 다양한 형태의 사회참여 및 취미·여가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평생학습 등 정책 추진

〈표-13〉 100세 여가 정책 구성요소

구성요소	내용
건강	건강한 노년 생활 연계 프로그램, 생활체육 및 스포츠 활동 프로그램
여행/관광/문화예술	실버여행 및 고령관광, 취미 및 오락 활동, 문화예술 체험 활동
평생학습	일자리 연계 자격증 취득, 취미 활동, 경험을 활용한 창작활동 지원
자원봉사	NPO 참여, 사회적 기업 참여 및 육성 등을 통한 일자리 연계, 자원봉사를 통한 사회참여 확대

- 100세 대비한 여가정책 모델은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조화롭게 구축하여야 하며 4개의 정책영역(건강, 여행/예술, 평생학습, 자원봉사)을 대상으로 시설(인프라), 전달체계, 콘텐츠(프로그램), 사회참여 체계 등의 구축을 목표로 함

- 하여야 하나, 경제활동 참여 비중이 급감하고, 고령화 진행으로 인한 연금자금의 부족, 주택구입 및 자녀지원 등으로 인한 채무부담 가중 등으로 인하여 여가를 위한 비용 투자를 꺼려함

- 여가 시간은 충분하나 여가비용이 매우 부족, 적극적인 여가생활을 향유하는데 한계
 - 은퇴 연령대의 여가비용은 60대의 경우 13만 1천원, 70대 이상은 7만 7천으로 타 연령대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 여가 활동에 경제적 이유로 인하여 비용 투자를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임. 이러한 결과를 뒷받침하고 있는 것은 70대 이상이 60.1%가 여가비용이 부족하다고 응답하고 있기 때문임
 - 그러나 여가 시간은 70대 이상의 경우 평일에 7.1시간, 휴일 8.1시간으로 연령대 중에서 가장 많은 여가 시간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고령층의 경우 여가활동에 대한 욕구는 있으나 경제적 요인으로 인하여 여가활동 및 취미활동에 접근하지 못하고 개인 중심의 소극적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음. 따라서 고령층 대상의 돈 덜 드는 여가활동이 이루어지도록 프로그램 개발 및 정책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임

〈그림-9〉 100세 여가 정책 모델



2) 노인의 경제적부담 줄이기 위한 돈 덜드는 여가문화 활성화

- 은퇴 이후 소득감소 및 연금 부족, 채무부담 가중 등으로 여가 비용 투자 한계
 - 100세 시대에는 60세 은퇴이후 40년 동안 생활을

〈표-14〉 연령별 여가비용

연령	여가비용	여가시간	
		평일	휴일
10대	6만2천원	3.1	6.3
20대	20만5천원	3.7	7.4
30대	19만6천원	3.2	6.7
40대	19만2천원	3.4	6.7
50대	18만7천원	3.9	6.9
60대	13만1천원	5.4	7.1
70대이상	7만7천원	7.1	8.1

자료: 문화관광부(2010). 2010년 국민여가활동조사

〈표-15〉 여가비용 충분정도(단위: %)

연령	매우 충분	충분	보통	부족	매우 부족
10대	2.7	3.8	26.7	58.0	8.7
20대	0.6	6.4	31.1	55.7	6.1
30대	0.4	5.0	26.9	57.2	10.6
40대	0.8	5.4	25.1	57.2	11.4
50대	0.8	6.1	27.9	56.1	9.1
60대	0.2	5.6	25.5	58.8	9.9
70대이상	0.8	6.0	33.1	54.4	5.7

○ 돈 덜 드는 여가사업(1) : 100세 청춘 문화예술교육활동 지원

■사업목적

- 노인들의 욕구가 높은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하여 자발적인 사회참여형 여가문화 창출 확대
 - ※ 노인들의 여가활동 욕구에 관한 의향을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문화예술 참여활동이 68.2%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기타 사회활동 60.5%, 스포츠관람 활동 59.5% 순 임. 그러나 향후 여가활동 가운데 가장 많이 증가할 내용으로는 문화예술관람(42.7%) 및 관광활동(60.2%) 으로 예상 됨

〈표-16〉 노인 여가활동별 이용의향(단위: %)

구분	문화예술관람 활동	문화예술참여 활동	스포츠관람 활동	스포츠참여 활동	관광 활동	취미오락 활동	휴식 활동	기타사회 활동
현 수준	55.0	68.2	59.5	57.1	36.5	44.6	55.3	60.5
증가	42.7	25.3	33.9	36.1	60.2	51.3	32.9	37.0

자료: 문화관광부(2006). 2006 국민여가조사

■사업개요

- 교육장소 : 시·군 지방문화원 또는 문화예술회관 등 문화기반시설
- 추진방법 : 지역 문화재단 혹은 사회적 기업 위탁운영
- 세부사업

사업예시	내 용
100세 문화예술창작교육프로그램 지원사업	노인연극, 노인합창, 노인예술제 등
100세 문화예술 동아리 지원사업	노인들로 구성된 문화예술 동아리 지원
찾아가는 청춘예술단 운영 지원 사업	동아리로 구성된 청춘예술단이 소외계층, 소외지역, 경로당을 방문하여 공연 및 예술행사 추진
노인 문화예술 자원봉사 및 활동가 양성	문화예술을 통해 재능을 보유하고 이를 통해 자원봉사 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지원

- 기대효과
 - 노인들의 문화예술창작 활동 참여 기회를 제공
 - 문화예술 재능을 개발하여 문화소외계층을 찾아가는 공연 나눔 가능(복지의 수혜대상자가 아닌 노인의 사회참여와 봉사 유도)

【사례】영국 노인 스토리텔링 프로젝트

- ▷ 노인들의 문화예술 소재 개발 및 취미연계
 - 영국의 교육자선단체(NIACE)가 노인들의 취미여가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문화예술소재를 활용하여 사회참여 및 자원봉사, 취미개발 등을 추진
 - 노인들의 유년기, 장년기 시절의 사진을 영상화하는 디지털 스토리텔링 프로젝트 지원하고 있음
 - 직접 캠코더를 사용하여 기록하는 방법을 교육한 후 다양한 문화예술자원을 발굴하고 자신들의 생활 기록



【사례】서울할미꽃 하모니카 앙상블

- ▷ 노인들의 중심으로 실버하모니카 연주단
 - 노인들의 문화예술 활동 지원으로 통해 실버하모니카 연주단이 운영되고 있음
 - 전국 동요축제 출연 및 각종 정기연주회에 초청받고 있음



○ 돈 덜 드는 여가사업(2) : 100세 콘서트 문화예술 향유 사업 (예술단드레스 타임시 무료관람)

- (사업목적) 노인들의 문화예술관람 활동 욕구를 충족하고 건강한 활동의 지원을 통해 노년이 행복한 전복 만들기 추진
- (사업내용) 한국소리문화의전당, 도립국악원 및 시·군 문화예술회관에서 개최되는 도 및 시·군 예술단 및 합창단의 공연 및 예술제 등의 ‘드레스 타임’을 이용한 노인무료 공연관람 추진

※드레스 타임(최종리허설) : 본 공연 전 의상을 갖춘 최종연습으로 본 공연과 거의 동일하게 진행됨. 예술단 및 합창단은 실제 공연과 같은 긴장감을 갖을 수 있고 노인들은 무료로 관람할 수 있어 노인들의 문화향유 기회제공. 특히 비예산 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어 지자체에서 적극추진 필요

○ 돈 덜 드는 여가사업(3) : 어르신 전북 관광투어

- (사업목적) 노인들의 관광 및 유람활동 욕구는 높으나 여가비용 부족 및 이동수단 불편, 여행정보 부족 등으

로 인하여 실질적 여가 활동을 할 수 없음. 따라서 노인들의 여행활동을 통해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이 유지되도록 전북 관광투어코스를 개발하여 운영

- (사업개요)
 - 여행지역 : 전북지역 관광 및 고향방문
 - 대 상 : 65세 이상 노인
 - 운영방법 : 전북순환관광버스를 활용하거나 비영리민간단체와 협약 체결

【사례】어르신 서울 투어

- ▷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서울 투어 및 고향방문 투어를 추진
 - 대상 : 65세이상 저소득 노인
 - 운영 : 서울투어(서울시노인종합복지관협회), 고향방문(사회복지법인 한벗재단)
 - 이용부담 : 이용료 및 기타 비용 전액 무료
 - 예산 : 10,000천원

3) 실버전용 극장, 여가와 일자리 연계할 수 있다

- 문화예술 관람 및 취미활동 등을 할 수 있는 실버전용 극장 필요
 - 전북지역 노인들의 여가활동 분석결과(본문의 <표9>)에 의하면 전국에서 유일하게 공연관람에 대한 여가비용을 전혀 투자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
 - 예향의 도시 전북, 판소리 고장의 발원지로서의 지역위상에 비해 노인들의 문화활동 수준은 극히 낮은 것으로 나타나 각종 공연과 예술, 연극 및 영화에 대한 노인들의 문화활동 욕구를 정책적으로 지원할 필요 있음
 - 노인 고령층은 돈이 덜 드는 여가활동을 원하고 있기 때문에 전북의 문화예술 인프라를 활용한 다양한

문화예술 활동, 공연 및 영화관람 등을 할 수 있는 실버전용극장을 설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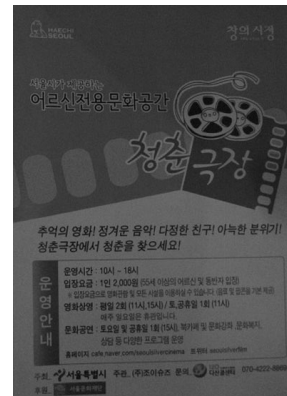
- 실버전용 극장은 문화예술 관련 사회적 기업이 운영하도록 하면, 일자리 창출 효과도 기대할 수 있음
- 실버전용 극장의 입지는 노인들의 접근성을 고려, 노인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가 적합하며 비용절감을 위해서는 폐관된 극장을 재활용하도록 함

※70대 이상 희망 여가활동 : 관광활동(40.3%), 취미활동(32.3%), 문화예술활동(17.8%), 스포츠활동(9.6%)
 70대 이상 희망여가공간 : 실내공간(67.1%), 실외공간(32.9%)

자료 : 문화관광부, 2010년 국민여가활동조사

【사례】 서울 실버영화관

- ▷ 허리우드 극장을 민간이 노인들을 중심으로 실버영화관으로 개관
- 서울 노인들이 많이 모이는 탑골공원 근처에 영화관을 운영
- 노인들이 선호하는 영화를 저렴한 가격으로 상영하여 노인 문화욕구 충족에 기여
- SK 케미칼, 서울시, 유한킴벌리에서 후원하고 있음
- 노인 부담 2,000원





전북발전연구원

560-014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전라감영로 57(중양동 4가 1번지)
Tel. 063-280-7100 Fax. 063-286-9206
www.jthink.kr